

# 올림픽 특수 '실종'...자영업자들 '울상'

### 광주·전남 배달업체 알바 추가 고용 엿말...“대목 기대했다 물거품” 시청률 낮고 매출 전인했던 축구 탈락...경영난 속 휴가철 겹쳐 한숨만

“올림픽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배달이 줄어 올해 대목 장사는 글렀네요.”

“2024 파리올림픽”이 개막한지 3일이 지났지만,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치킨, 피자, 보쌈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은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고물가에 경영이 힘들어도 근근이 버텨내면서 올림픽 대목을 기대했으나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29일 자정 중국과 대한민국 여자양궁이 결승전

에서 격돌했지만,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족발 전문 업체의 전화기는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울리지 않았다.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에는 수분 단위로 올리던 주문전화가 잠잠해 업소 안은 한산했다.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자 업소주인의 환호만 이어졌다.

족발집 사장 김모(67)씨는 “지난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장사 준비 때문에 제대로 경기를 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주문이 없어 대표팀 경기를 볼 수 있었다”면서 “양궁 여자 대표팀 10연패 소식은 기

쁘지만 매출로 연결되지 않으니 허탈하다”고 했다.

인근 치킨집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국제 스포츠 경기 시즌에 하룻밤 최대 120마리까지 주문이 폭주했지만,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50마리 매출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치킨 등 배달 자영업자들은 보통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엔 배달 주문이 몰렸지만, 이번 올림픽은 특수가 없다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에 경영난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이 희망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 특수가 실종된다는 축구, 배구 등 인기 구기 종목 다수가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탓이다.

남구 백운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성주(67)씨는 “올해 초 아시안컵엔 평소보다 30~40%

가량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도 기대했는데 특수를 못느끼고 있다”며 “지난 올림픽 맨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에서 경기를 많이 봤고 배구 등 인기종목의 재밌는 경기도 많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배달플랫폼의 치솟는 수수료 부담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구 봉선동에서 22년째 치킨집을 운영하는 허모(66)씨는 “여차피 팔수록 손해인데 올림픽이라고 다를 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허씨는 “올림픽이라고 주문이 크게 늘지도 않는데 배달업 수수료는 건당 14%씩 나간다. 열심히해보겠다고 광고료를 지불해도 배달 앱만 배불리니 장사를 해도 ‘제 살 깎아먹기’라고 울먹였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를 접고 빨리 문을 닫는 업소들까지 있다.

자영업자들은 기존 올림픽 대목 때 영업시간을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추가 고용하는 등 대비를 했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을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식용유 등 식자재 물가와 배달앱 수수료가 치솟는 상황에서 한 두 건 주문을 더 받기 위해 투자하는 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남구 주월동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진숙(여·54)씨 역시 일찍이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한씨는 “예전 같으면 올림픽 개최식 즈음에 주문이 몰릴텐데 이번엔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 종목을 보고 재료 추가 주문을 결정하는데 이번엔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문했다.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며 사람들이 다들 여행을 떠난 것 같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빙상장 피서 “폭염 물렸거라” 무더위가 계속된 2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영주빙상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서 또 전동 ‘킬’ 보드

### 20대 남성 시내버스 들이받고 사망...안전모 착용 안해

광주에서 또 공유 전동킴보드를 운전하던 20대가 버스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광주광역시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장동의 한 교차로에서 공유 전동킴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시내버스 오른쪽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안전모

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새벽 5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는 2명이 함께 타고 있던 전동킴보드가 버스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내부감사 중 담당부서 승인 없이 CCTV 영상 활용했다면? 국가인권위 “광산구시설공단, 인권 침해한 것”

### 감사 담당직원 직무교육 권고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직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관계부서 승인 없이 CCTV영상을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공단측이 지난해 4월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CCTV 영상을 수집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측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CCTV 영상 관리 부

서에 저장된 전체 영상에 대하여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USB)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공단측은 내부 규정상의 CCTV 영상 보관 기간(30일)을 넘겨(46일)해 운영 중이었는데, 담당 부서에 감사대상 기간에 한정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했다”면서 “공단측은 담당 부서로부터 영상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서에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 역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감사 담당자인 피진정인들이 직접 USB에 저장해 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단측이 감사자료 요구시 내부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동료선원 폭행치사 40대, 살인 대신 상해치사 유죄

### 광주고법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영평군의 선원 숙소에서 음식과 술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B(62)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비로 구입한 닭 한마리 등을 B씨에게 건네며 닭죽을 쫓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가 삶은 닭을 내놓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은 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알고

지낸 짧은기간(7주)에 누적된 불만으로 순간적·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살해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30여분 동안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B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검찰의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금 갇아먹는

# 기생충이

#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